



미리보는 위(Wee) 뉴스레터

전문가 칼럼 • 02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발전과 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박영숙

현장의 소리 • 04

언젠가는 슬기로울 상담교사 생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수원북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현진
세상에 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 관계 증진, 소통 기회 만들기
대곡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남미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해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한국 학생 정신건강 정책 및 자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 임우영

이슈브리프 • 15

위기의 교실을 넘어
: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정희

위(Wee), 알려드립니다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제출방법** | louis94805@nypi.re.kr로 제출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해인



전문가 칼럼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발전과 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소아정신과 전문의) 곽영숙



국내에서 시행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여러 역학 조사를 보면 대략 8~10%의 아동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에 취약한 학생의 비율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WHO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의 77%가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도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20%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서 학교 기반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을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선별 및 개입,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이나 자원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교 기반 정신건강 중재의 배경과 역사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998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우선순위 대상의 하나가 되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요 사업으로 시도되었다. 이 사업은 학교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학교정신건강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1981년에 서울시교육청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현 학교보건진흥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며 두 분의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학교 보건실이나 상담실 등에서 수시로 의뢰되는 학생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진료와 상담을 한 바가 있다. 또한 1998년에서

2007년까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약을 통해 서울시 11개 교육지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전문의 상담 제도가 운영되며 교육계와 의료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되었으나 학생정신건강문제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 다시 한번 사회 문제화되면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조사' 항목이 신설되어 2007년에 전국 96개교 대상 학생정신건강 검진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었고, 이후 정신건강 선별평가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위(We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이 추진되며 학교 상담망 구축이 시작되었다. 학교 상담 및 복지는 학생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후 정신의학과와의 협력 관계로 이어진다.

2012년에 교육부 위탁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개소하며 소아정신의학 분야의 지식과 임상 경험이 국내 학교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기여하게 된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설립·지원하는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지원, 국가 수준의 재난 및 학교위기 시 위기개입 지원 및 교직원 심리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중앙지원단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기관

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1차 선별된 학생들에 대한 심층평가와 지역 병원 등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이었다. 하지만 정신건강 위험성이 높은 학생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선별되지 않고 부모가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관심군 학생의 심층평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개입과 지원을 하는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17년부터는 자해·자살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거점센터가 수립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현재 7곳의 센터가 사업을 수행 중이며 점차 확대하여 서울시 전역을 담당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협력모델사업에서는 학교 마음건강 자문의사를 두어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사 자문이나 사례회의 개최, 학교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자문, 교사교육,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2015년 제주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청에 스쿨닥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역마다 학교, 교육청과 연계된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가 생겨 학교자문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국내 학교 기반 정신건강 중재의 큰 축의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학교 위기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주소대부고 해병대 캠프 사망 사건과 단원고의 세월호 재난 시의 위기개입을 포함해서 자살 학생 발생 시 학교 위기개입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여하면서 모든 학교에 위기개입 매뉴얼이 배포되었고 위기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 구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학교 위기개입 매뉴얼이 만들어져 배포되었고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학생, 교사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들이 마련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2009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었고 다각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였다. 학생의 자살 위험을 학교 및 기존 상담시스템에서 조기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이 포함되었다.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SNS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가 추진된 배경이며, 2018년 초 시범 운영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는 24시간 자살위기학생 문자 상담서비스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관련 교육 이수 후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기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119,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사회정서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2024년 1월, 교육부에 학생 마음건강 정책 부서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중점과제에 마음건강을 넣고 최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2024년부터 보완·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사의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발견-치유-회복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맞춤형 통합지원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내 개별교사 대응에서 통합지원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매년 모든 학생에게 사회정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교육 등 성장 촉진을 위한 보편적 교육, 상시 검사체계 및 의료기관 기반 선별검사로 전환 추진한다. 셋째, 정신건강전문가 지원을 확대하며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도입으로 학교에 상시 긴급 지원을 한다. 넷째, 학생 상담체계를 보완하며 학교 위(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고위기 학생의 학교밖 위탁-치유-학교 복귀 지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학부모 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범부처 연계를 강화한다. 이 모든 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상담교사 생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수원북중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김현진



‘현장의 소리’ 문자 그대로 제가 상담교사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상담교사의 사명감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변화

중학생이던 시절에 교실에서 문득 ‘아, 청소년 시기를 겪는 건 이렇게 힘든데 왜 청소년기 마음을 보듬어주는 직업이 없지? 나는 나중에 청소년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어른이 되어야지’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그 결심이 이뤄진 날, 도심에서 떨어진 경기도 양평 소규모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꿈꿔왔던 일을 한다는 설렘도 잠시, 몰아치는 학생들의 위기 상황에 함께 허우적대며 정답 없는 문제에 맞서 같이 울고 달래며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병원과 상담센터, 교통편조차 마땅치 않았던 지역이다 보니 자살·자해나 아동학대, 정신질환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며 두려움과 무기력감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하루하루 채워갔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소진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상담교사로서 중심을 두어야 하는 일과 학교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고 좀 더 큰 지역에서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배워보고자 부천 위(Wee) 센터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Wee) 센터에서는 학교와는 다른 차원으로 복잡한 다중적 역할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에 순회상담을 나가며 ‘상담자의 역할’,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행정가의 역할’, 학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2차 기관의 역할’, 교육지원청 안에서의 ‘공무원의 역할’뿐 아니라 실장의 경우는 센터의 ‘책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겠다는 저의 열망은 여러 역할을 잘 소화해야 한

다는 책임감과 버거움으로 덮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에서 ‘2024년도 위(Wee) 프로젝트 기능강화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위(Wee) 센터 식구들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살·자해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상담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025년에도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비록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쌓여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위(Wee) 클래스에서, 위(Wee) 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이 쌓여 위(Wee) 프로젝트가 점차 방향을 잡아가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지원의 길

위(Wee) 프로젝트 외에도 학생 위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수원북중학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3년 차 선도학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막연한 부담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적응하고 몇 개월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위기상황을 혼자 대응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위기 학생에 대해 이해나 대처에 익숙하시고, 외부 연계 지원 및 대안적 프로그램 등의 활동에도 적극적이셨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 팀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위기 사례가 있을 때 학생맞춤통합지원팀에서 함께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닌 팀 구조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든든함과 함께 심리적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모 중학교에 교생실습과 교육봉사를 나갔던 우연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교육활동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위기 학생 돌봄에 많은 관심을 쏟는 학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정례적인 사례회의로 위기 예방·발견·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 위기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실습생인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가르침을 주셨던 존경하는 저의 멘토 선생님은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강의를 전국으로 하시면서 그때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학교를 바꿀 수 있다”

학교 상담의 방향

이렇듯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학교 상담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상담의 역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위기가 점점 다양해지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담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경계 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황과 위기가 모두 달라서 학교 상담교사의 역할도 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학교상담의 명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위클래스 선생님은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너 그러면 안돼”라는 일반적인 염려가 아닌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선생님들의 업무 영역이 좀 더 명료화되면서 관련된 연수 및 수련 체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상담 선생님들은 각자의 재량으로 연수 및 수퍼비전을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사비를 들여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험과 숙련도 또한 상담 전문성에 중요한 요소인데 학교에는 초임 선생님부터 베테랑 선생님까지 다양하게 계십니다. 상담 역량을 너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향, 기타 맡은 업무에 대한 숙련도까지 하면 개개인의 상담선생님이 가진 학교상담 직무역량은 같은 모양 하나 없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현재 학교상담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막연한 업무 경계의 한계점, 자살·자해와 같은 위기 사안이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담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역량과 숙련도를 너머 학교상담의 역할과 역량강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상담의 고유한 전문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휘되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치고 흔들려도 우리가 계속 서 있는 이유

“요즘 하루에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동료 상담교사가 했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을 선별하고 상담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화창한 봄을 누릴 새도 없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다 한 학기가 끝납니다. 휘몰아치는 절망과 슬픔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저 자신도 그 늪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년에 저는 심장이 빨리 뛰고 왠지 목이 답답해오고 눈물이 나는 낯선 증상을 경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던 공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텨내야 된다, 잘 해내야 된다’ 하는 책임감을 가장한 압박감이 저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마 처음부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죽음과 절망이 무서운 보통 사람이었기에, 위기에 처한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헤매고 자책하는 무기력한 시간이 누적된 것이지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이러한 상태에 이미 들어서니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도움과 지지를 받았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함께 대응하는 체계에 적응을 좀 했는지 이제는 ‘나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비 온 뒤 굳는 땅처럼 전과 다르게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내가 충분하다’는 말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상처를 보여줄 때마다,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 앉고 상담하고 나면 제 몸도 힘이 쭉 빠져 잠시동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분석과 수퍼비전, 특히 임용 동기들과 주기적으로 자조 모임과 동료 수퍼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 어느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응원하며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회복 중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상담실에서 겨우 꺼내 보이고 미소 짓는 새싹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함께하는 따뜻한 동료들과 함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픈 마음을 품고 견뎌낸 모든 상담선생님들께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소리

위(Wee) 클래스

세상에 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 관계 증진, 소통 기회 만들기

대곡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남미진



얼마 전에 본 영화 속 주인공은 본인들을 루저, 하자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세상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에 혼자 있으려 하였습니다. 이를 보며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과 무척 닮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학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위클래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나는 혼자야. 여기에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어.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가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대인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갈등을 대처하는 것이 더욱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또래만 아니라 부모님과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 혼자인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기존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상황에 맞춰 수정하며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자조 집단 형성, 집단 프로그램 운영

위클래스는 점심시간이면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놀거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말할 곳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예수업을 하기도 하고 교우관계, 학업중단 등 비슷한 고민을 지닌 학생들의 대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없을 때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어 서로의 고민에 대해 공감과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툴기에 중재하여 숨은 의도를 알려주고 행동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해,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 집단이 되면 비합리적 사고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에 대화에 자주 개입하고 때로는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충동을 조절하고 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응원하였습니다. 또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미리 발굴하여 집단으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제동행 체험 프로그램

또래와 교류는 불편하지만, 교사와 교류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바라듯 선생님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학업적 성취가 없으면 관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교의 많은 선생님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함께하며 다양한 교류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캠프활동으로 선생님들과 집단 프로그램, 삼겹살 구이, 물총 놀이를 진행하니 외향적인 학생들은 즐겼으나 내향적인 학생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되 일반인의 시선으로 설명해 주는 도슨트가 있었으면 하였습니다. 미술 교사의 도움으로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일 또래도슨트가 되었습니다. 도슨트를 맡은 학생은 설명하기 위해 공부하고 소통



하는 법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고 듣는 학생들에게도 작품을 더 자세히 관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과데이 / 수능 응원 메시지 캠페인

사과데이는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친구, 선생님께 편지와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매년 진행하다 보니 본인에게, 자신의 작년 학반, 번호 후배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감사 편지를 학생, 동료 교사에게 쓰며 소통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이 높은 학생들이 많아지기에 모두가 응원을 남기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불안을 낮추는 호흡법 등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잘하라는 말 대신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누구나 적을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사, 후배만의 응원과 달리 친구 간 응원, 스스로 다짐도 가능했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청소년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크게 내색하지 않을 뿐 모두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소년 전문가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위클래스 출입이 어색한 학생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기에 위기 사전예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모두가 비슷하였다는 사실에 불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게 도움이 될까?'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학교에는 상담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고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담으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어렵고 집단 상담은 모집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소규모 집단 활동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다양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 결과, 죽고자 하던 학생이 미래를 계획했고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또래와 사소한 소통 기회, 예상치 못한 어른들의 도움들이 모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시도하며 더 많은 관계를 경험, 소통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동료ja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상담교사는 학교에 혼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성의 한계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들 및 타교 전문상담교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활동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들의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현장의 소리

병원형 위(Wee)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해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최초의 병원형 해봄 위(Wee)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함’과 ‘다시 해보자’는 “해봄”의 의미처럼 청소년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지치고 무기력했던 순간 속에서도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센터가 개소하기까지 1년간 대장정의 발자국을 공유합니다.

병원형 위(Wee)센터란?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 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 사회 연계 치료 중심 민간위탁 기관

추진배경

- 마음건강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위험 학생들에게는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지만 제주도 내에는 학생들이 입원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고, 치료 과정에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업중단이 발생하여 유급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정서위기 학생은 증가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줄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인 학교-교육청-병원 연계 학생 심리·정서 시스템 구축 필요하였음.



하늘 정원 (6층)



교실 (1층)

연대

학생,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긍정적 변화를 이끕니다

치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센터의 가치

성장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건강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배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센터가 하는 일

개인 개입

- 기본 건강 검진
- 심리검사, 위기 스크리닝 검사
- 정신과전문의 면담
- 약물치료 및 교육
- 개별 심층 심리치료
- 가족상담
- 치료 및 복교 과정 계획 논의

부모상담 및 교육

- 가족상담
- 보호자 상담
- 부모교육
- 지역사회 이용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교과 및 치료프로그램

-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 사회, 한국사
- 대안교과(정서.심리치료)
 - 정서관리 / 인간관계훈련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심리극 / 집단상담 등

복교 및 사후관리

- 복교 준비
 - 센터방문의 날 실시
 - 담임교사 상담 및 협조
 - 복교 준비 상담 및 진행
 - 위탁 종결 관련 논의
- 복교 후 사후관리
 - 외래진료 / 개별면담
 - 부모상담 등

체험활동

- 진로교육 / 동아리활동
- 자치회의 / 봉사활동
- 안전교육 등

유관기관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
- 위탁학생 재적학교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와의 협력
- 지역사회 협력기관 담당자 교육 및 협력

운영 개요

센터명	개소연월	위탁기간	정원	운영형태	인력
해봄Wee센터	2025.5.1.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20명	입원치유형 (중·고통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7명 센터장(정신건강의학전문의), 부센터장(정신건강의학의사), 상담실장,정신건강사회복지사, 행정(상근인력 4명)

시설현황

구분	주요시설
1층 Wee센터	교실, 상담실, 휴게실, 교무실, 화장실 등
3층 진료실	진료실, 심리검사실, 임상검사실 등
5층, 6층 입원실	입원실, 상담실, 야외 휴게실 등
지하, 별관	프로그램실, 제빵·바리스타실습실 등

센터 이용절차

위탁 문의 및 신청서 제출	초기상담 및 평가	사례회의	위탁교육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Wee센터	[해봄 Wee센터] 초기상담, 심리평가, 전문의 면담 등	[해봄 Wee센터] 위탁 가능 여부 결정 수탁결정 결과 알림	[해봄 Wee센터] 상담, 치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병원형Wee센터 ▶ 학교로 수탁 종결 통지서 발송 •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위탁학생의 출결은 위탁교육기관 에서 관리 후 재적학교로 통보
- 위탁학생의 학적, 평가는 재적 학교에서 관리

센터 설립 추진 노력 및 전략

-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병원형 위(Wee)센터를 구축하고자 노력함. 또한 타시도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병원형 위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 병원형 위(Wee)센터가 안정적인 인력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정신과 병원을 출입한다는 사회의 편견으로 치료가 시급한 학생이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하여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 공간 구성(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휴게실 등)이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입원실, 휴게실, 프로그램실(바리스타 실습실), 야외 공간(하늘정원) 등 세밀하게 공간 구성함.
- 병원형 위(Wee)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일상에서 친숙하고 선입견이 없이 학생 마음건강이 치유할 수 곳이 될 수 있도록 함
- 인식 개선 홍보 활동 : 설명회 개최, 함께하는 제주교육, 언론홍보, SNS 활용 홍보,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소, 방송국 생방송 대담 출연 등 적극적 홍보 활용
-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협의체 운영,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등



휴식공간(1층)



입원실(5,6층)



상담실(1층)



위·수탁협약체결 협약식



병원형 해봄 위(Wee)센터 설립 추진경과

* 병원형 위(Wee)센터 개소에 관심있는 지역에 참고가 되도록 세부 경과를 제시합니다

- 타시도 운영 벤치마킹 기관 방문 (2024. 5. ~ 7.)
 - ※ 준비기간 동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방문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실시 (2024. 6.)
 - ※ 타 시도교육청 운영 사항 조사, 초기 구축비 사전 조사 (교육시설과 협조)
- 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2024. 7.)
- 병원형 위(Wee)센터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 8.)
 - ※ 만족도 조사 결과 정서위기학생 지원 방안 '병원형 Wee센터 추진' 91.55% 필요
- 병원형 위(Wee)센터 추진(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심의(2024. 8. ~ 9.)
- 사업비 예산편성, 예산안 심의 및 확정 (2024. 9. ~ 12.)
- 병원형 위(Wee)센터 인식 제고 홍보 등(2024. 12. ~ 2025. 5.)
 - ※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기,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등
- 수탁기관 공모, 선정심사, 선정기관 공개, 위·수탁기관 협약 체결 (2024. 12. ~ 2025. 1.)
 - ※ 위탁기간(1차년도) : 2025. 2. 1. ~ 2026. 1. 31. (성과 평가에 따라 연장)
- 병원형 위(Wee)센터 명칭 공모, “해봄Wee센터” 선정 (2025. 2. ~ 3.)
- 병원형 위(Wee)센터 기반 구축(리모델링, 센터 인력 채용 등) (2025. 2. ~ 4.)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자문 협의체 구성·운영 (2025. 3.)
 - ※ 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교사, 도교육(지원)청 유관부서 담당자, 해봄 위센터 관계자 등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설명회 개최 (2025. 4.)
- 병원형 위(Wee)센터 개소 (2025. 5. 1. ~)
 - ※ 개소식 '25. 6. 9.(월)



현장의 소리

한국 학생 정신건강 정책 및 자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우영



배경 및 문제 제기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 자해,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울·불안 증상 경험률은 코로나19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상담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중심의 상담체계(위(Wee)프로젝트 등)를 구축해 왔으나, 여전히 자원의 부족과 체계적 연계 미비, 일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학생 정신건강 현황

항목	수치 및 내용 (2023년 기준)	출처
자살 학생 수	306명 (10~19세 기준)	통계청(2023)
우울감 경험률	중학생 23.5%, 고등학생 27.6%	교육부(2024)
자해 시도 경험률	전체 학생 중 6.1%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23)
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	전국 평균 695명	교육통계서비스 (2024)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전체의 약 8%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23)

현행 학생정신건강 정책 및 자원

- ▶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신설 및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실시 (2024년)
: 학교에서 보편적 마음건강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 및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예방에 중점
- ▶ 고위험군 식별을 위한 학교 기반의 선별검사

- 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한국에서 학교 정신건강 선별을 목적으로 개발된 국가 표준 검사 도구
 -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
 -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 및 전문기관 연계
 - 담임교사 및 학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제공



- ② 마음이지(EASY)검사: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평가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개발된 온라인 심리검사 플랫폼.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1차)에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심층평가 도구로 사용되거나 또는 마음 건강에 대해 수시로 평가 및 선별을 하기 위해 사용됨. 위험군은 Wee센터 및 외부 의료기관으로 연계

위(Wee) 프로젝트

위(Wee)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지원 통합 서비스 체계입니다. 이름인 "위(Wee)"는 We(우리) + Education(교육) + Emotion(감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예방
-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치료·교육 연계
-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① 위(Wee) 클래스(학교 내):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여 기초상담 제공
- ② 위(Wee) 센터(교육지원청): 심층상담 및 외부기관 연계 역할
- 가정형 위(Wee)센터: 단기 보호와 심리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생활 중심형 위기개입 시설

- 병원형 위(Wee)센터: 의료기관과 연계된 정신건강 치료 중심 위센터
- ③ 위(Wee) 스쿨 (위탁형 대안학교): 고위기 학생의 대안 교육 제공

위(Wee)닥터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 정신건강 전문 자문 서비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온라인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 자문을 제공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적절한 연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자문과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다들어줄게) 24시간 모바일 상담

청소년을 위한 24시간 모바일 기반 실시간 상담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위기 청소년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다들어줄게” 추가 이후, 채팅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전문상담사가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하기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최적화된 정신건강 접근 수단입니다. 심야시간,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시 상담 가능하며, 필요시 위기개입팀의 출동도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평가·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조기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미연계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었으나 치료 중단 위기 학생, 의료 취약지역의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거점센터 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 대상 심층평가 진행 후, 사례 회의를 통해 학생별 개입전략 수립,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치료 지원
-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심리·정신으로 접근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디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꿈드림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자립·상담·직업훈련 등 종합 지원
- ② 디딤센터 : 정서·행동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

결론

한국 사회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정책과 자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마음이지(EASY)검사 등의 체계적 선별 및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위닥터, 청소년모바일상담(다들어줄게) 등은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위기학생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제도권 외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시범사업과 꿈드림센터, 디딤센터 등을 통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 전문 인력의 충분한 확보, △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학교 현장의 실행력 확보, △ 청소년과 보호자의 인식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한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과 조기 개입, 통합적 지원이 핵심이므로, 앞으로도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속적 투자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4). 청소년 정신건강 시범사업 보고서.
통계청 (2023). 청소년 자살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서비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참고자료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사업 흐름도

학생 지원 절차



학교 컨설팅



출처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2024).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우수사례집.

2025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학교지원센터

25.6.24.기준

시도	학교지원센터명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서부교육지원청Wee센터
부산	남부교육지원청Wee센터
	북부교육지원청Wee센터
	동래교육지원청Wee센터
	해운대교육지원청 Wee센터
	경북대병원Wee센터
대구	영남Wee센터
	동산Wee센터
	대구가톨릭Wee센터
	동부교육지원청Wee센터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
	인천바오로병원
	새희망병원
광주	광주서부 마음건강증진센터
	광주동부 마음건강증진센터
	광주광산 마음건강증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울산	우리아이마음건강지원센터
	강북Wee센터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세종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경기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용인 이음병원

시도	학교지원센터명
경기	컴포트정신건강의학과의원(파주금촌)
	미사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안산연세병원
	서울이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알로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컴포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파주운정)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행복주는의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Wee센터
	강릉올곡병원Wee센터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
충남	천안중앙병원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백제종합병원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해강병원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전북대학교병원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전남	전남동부거점센터(조선대)
	전남중부거점센터(남부대)
	전남서부거점센터(목포대)
경북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생명사랑 동북부센터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
제주	학생마음건강센터



위기의 교실을 넘어

: 학생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정희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 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학생 자살률의 증가, 자해 및 불안장애와 같은 심화되는 정신 건강 문제는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큰 우려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한민국은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2024)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3.4%에 이르렀고, 우울감 경험률은 무려 28.3%에 달한다. 학생들의 외로움 경험률도 2020년 15.8%에서 2023년 23.7%로 증가해, 마음건강 위기의 심화가 뚜렷하다. ADHD, PTSD, 자해 및 충동조절장애 등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학생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별 상담의 확대를 넘어, 보다 구조화되고 통합적인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기존의 위(Wee) 프로젝트는 위기학생 상담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보편적 예방부터 위기 개입, 그리고 회복지원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마음건강 지원체계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마음건강 시스템을 통해, 위기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심리정서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을 아우르는 다층적 학생지원 전략

학생 마음건강 지원은 단순히 위기 개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 학교는 모든 학생이 다양한 정도의 스트레스, 불안, 사회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조기발견-집중개입-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수준별 지원 전략이 정교하

게 설계되어야 한다.

위(Wee) 클래스는 일상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저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교육과 정기상담을 제공하고, 중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집중상담 및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될 필요가 있다. 자살 충동이나 자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은 병원형 Wee 센터 또는 정신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위기 수준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Wee 클래스는 학교의 마음건강 '컨트롤타워'로서 팀 접근 중심의 사례관리와 외부기관 연계를 주도해야 한다. 특히,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위원회를 통해 교사, 상담교사, 학교복지사, 정신건강전문가가 함께 개입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입방안을 조정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인프라 정비

통합적인 학생 마음건강지원체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의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위(Wee) 프로젝트의 근거가 제한적이며,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및 「학생마음건강지원법」의 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위(Wee) 프로젝트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틀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부모 동의 없이도 고위험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자해·자살 충동 학생에 대한 응급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교사 및 전문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

1. 이 글은 2024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연구로 추진된 「학생마음건강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요약한 것임.

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학교에 위(Wee) 클래스를 설치하고, 위(Wee) 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며, 병원형 위(Wee)센터와 같은 대안 기관을 확충하는 인프라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전국 위(Wee) 클래스 설치율은 여전히 지역적 편차가 크며, 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권장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다. 병원형 위(Wee)센터도 2024년 기준 17개소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농어촌, 낙후 지역 등 정신건강 자원이 부족한 곳에는 우선적인 자원 배치와 지역특화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마음건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 제고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정서·행동특성검사, 상담이력, 사례관리 결과 등을 통합관리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기록관리 표준화 등 안전한 정보공유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협력 기반 조성

상담인력의 부족과 역량의 격차는 학생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문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상담교사들이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에 투입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위기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기반 학습, 모의상담, 현장형 실습 등을 도입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신규 상담교사에 대한 멘토링 체계와 집단 수퍼비전도 정례화되어야 하며,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협력 기반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은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간 연계를 주도하고, 심리정서·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학교 안팎에서 즉각적이고 일관된 개입이 가능해진다.

조기 발견과 마음건강 리터러시 확산을 통한 예방 중심 접근

심리정서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사 중심의 조기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마음이지(EASY)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위기징후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연수와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교사 및 외부전문가에게 즉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는 '마음건강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은 예방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정기적으로 정서 교육, 감정표현 훈련, 스트레스 해소법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학부모 대상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하여 조기개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심층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자해·자살 시도 이후의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병원형 위(Wee)센터 및 지역정신건강센터와의 집중 연계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기 이후의 회복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지원체계, 지금이 전환의 시작점

학교는 단지 학습의 공간이 아닌, 학생의 정서와 삶을 지탱하는 주요 거점이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Wee) 프로젝트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위기수준별 마음건강 대응체계를 구조화하고, 마음건강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력의 양적 확충과 전문성 강화,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교사나 상담(교)사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공공정책의 핵심 영역이다. 예방에서 회복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마음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소식

위(Wee), 알려드립니다!

2025년 역량체계 기반 학교상담 리더 연수를 시작합니다

• 학교상담 리더 양성

- (목표)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체계에 기반한 학교상담 역량 강화를 이끌어갈 선도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상담 리더 양성
- (선발) 교육경력, 소지자격, 업무·동료코칭 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선정 및 추천
- (역할) ①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을 선도하며, ②지역에 맞는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③동료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를 컨설팅·수퍼비전 및 ④교육청 연수강사로 활동
- (인증) 학교상담 리더 연수 이수 시, '학교상담 리더' 위촉장 부여

• 연수체계 운영방안

- (연수내용)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역량체계를 바탕으로 ①상담, ②교육, ③연계협력, ④행정관리, ⑤전문성 개발 등 5개 영역을 고루 포함하여 구성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의 역량체계(Competency Framework)(안) 〉

역량군	상담(4)	교육(4)	연계·협력(2)	행정·관리(2)	전문성 개발(3)
직무 역량	①개인상담 ②집단상담 ③심리검사·평가 ④위기상담	①학부모 상담 ②교직원 자문 ③학생 예방교육 ④프로그램 개발·운영	①학생·학부모·교사 연계·협력 ②지역기관 연계·협력	①학교상담 기획 ②학교상담 운영·관리	①학교상담 수퍼비전 ②자기개발 ③정책이해·실천

역량 수준별 연수 방법	역량수준		수준별 연수 방법	
	[이해]	기본 상담 기술 습득, 기초적 사례 분석	→	원격 콘텐츠 및 비대면 실시간 연수
	[활용]	다양한 상담기법 적용 능력 향상,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개발 등	→	실습 중심 연수(대면/비대면 실시간)
	[발전·응용]	고차원적 상담문제 해결, 윤리적 판단능력 향상 등	→	수퍼비전 등 교사 간 네트워크

- (연수강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체계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진과 학계·현장 전문가 등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연수 운영
- (연수방식) 학교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워크숍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과정을 병행하여 실시

〈 '25년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

구분	온라인 콘텐츠 연수	과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	집합 연수
일정	7~10월	7~11월	(1기)10월 27~28일, (2기)10월 30~31일 (2일, 110명씩 2회)	(1기)11월 27일~29일 (2기)12월 04~06일 (2박3일, 110명씩 2회)
교육 내용	학교상담 역량 (중앙교육연수원, 2개 과정)	실습을 위한 과제 수행 (사례보고서(2)· 경험보고서(1) 작성)	개인·위기상담, 상담윤리 및 정책 등	개인·집단상담, 수퍼비전 등
운영 방식	실시간 연수 전까지 이수 권장	실시간/집합 연수 전 제출	이론, 실습 및 토론을 혼합·구성	상담실습 및 수퍼비전 실습 등
연수 시간	총 20차시	총 40차시(과제 8, 실시간 12, 집합 20) * 집합 20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1차시, 7월 18일), 입소식(0.5차시), 수료식(0.5차시) 포함		

▶ 주관 및 주최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당신이 희망입니다

2025년 제14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공유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성장한 학생들과 학생들 곁에서 힘이 되어 준 관계자들을 격려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성장 동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 시상 계획 : 2개 부문

학생 및 상담업무담당자(2인1조 팀 지원)

학생: 위(Wee)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상담, 연계 등을 통해 학교폭력, 학업중단,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건강한 학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의 사례

상담업무담당자: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발전에 공헌한 상담업무담당자의 사례

기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거둬으로써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한 사례

♡ 시상 내역

부문	훈격
학생 및 상담업무담당자 (2인1조 팀 지원)	교육부장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기관	교육부장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 부분별 상장 및 상금 수여(단, 기관 부문은 상금 대신 현판 수여) ※ 시상 내역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

- 일자 : 2025년 11월 21일(금) 예정
- 장소 : 추후 안내



♡ 신청 방법

- 공모 기간: 2025년 8월 18일(월) ~ 10월 10일(금) (안)
- 접수 방법: 제출 양식에 맞추어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접수
※ 세부 공모 요강은 8월경 공문 및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044-415-2190, 044-415-2157 / wee2024@nypi.re.kr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